기아차 광주공장 1월 4만4410대 생산 '역대 최대'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불구 월간 생산량 기록 세워

올뉴쏘울 최다 생산…올 53만대 증산 달성 '청신호'

62만대 증산프로젝트 본격 가동 첫해를 맞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달 월간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올해 53만대의 생산 목표를 세운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초부터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켠 셈이다.

4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 생산량은 총 4만4410대로, 지난 2011년 광주공장 최대 생산기록인 48만8154대를 세울 당시의 1월 생산량 4만3733대보다 677대를 더 생산했다. 지난달은 설 연휴가 끼어있어 평년보다 이틀이나 생산일수가 감소했지만 1월 중 최고 생산기록을 갱신해 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차종별로는 전략수출 차종인 올뉴쏘울이 1만8701대로 가장 많이 생산됐고, 스포티지R 1만3518대, 올뉴카렌스 3781대, 봉고트럭 8085대, 버스 등이 325대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월에는 카렌스가 모델 변경되면서 거의 생산이 없었던 반면, 올 1월에는 올뉴카렌스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생산량을 견인했다.

기아차가 1월 국내시장에서 3만4000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나 판매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공장의 생산량 갱신 기록이 더욱 특별하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봉고트럭과 스포티지R은 지난 1월 각각 4524대, 3988대가 팔리며 기아차의 국내시장 판매 순위 2·4위를 차지했다. 스포티지R은 해외시장에서도 3만4030대가 팔려나갔다.

기아차 관계자는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프로젝트는 올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달 평년보다 적은 조업일수로도 최대 생산량 기록을 돌파해 올해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즐거운 상상의 시작 광주공장에서'를 중장기 비전으로 삼고 구체적인 5대 운영방침으로 생산목표 53만대 달성을 비롯, 현장품질 실행력 확보, 제조원가 경쟁력 확보, 자율안전활동으로 무재해 달성, 상호협력을 위한 화합과 존중 등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4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광주총회 조직위원회는 4일 광주시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ICID광주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제5차 조직위원회의를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2014 ICID 광주총회 준비상황 점검

2014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상무·박재순)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ICID광주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제5차 조직위원회의를 갖고 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석 광주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새로 위촉된 조직운영위원 및 분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초청 성공경험 공유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계획 ▲개발도상국 초청 라운드테이블 추진현황 ▲2014 ICID광주총회의 고유특성 주제발표 및 의견수렴 등이 이뤄졌다.

이상무(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공동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의 관개배수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한국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주최로 열리게 되는 2014 ICID 광주총회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전세계 60여개국 1200여명의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식량과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오는 9월 14일부터 1주일간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10일 광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14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보화지원사업 설명회는 대학과 연구기관, 생산정보화에 관심있는 중소기업과 유관기관(협회·조합)이 참석,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기술유출방지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화지원사업은 생산현장 정보화지원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경영혁신플랫폼지원 등 총 21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의(062-360-915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4월 출시 전기차 '쏘울 EV'

업계 최초 美UL환경 마크 획득

기아자동차는 오는 4월 출시예정인 전기차 '쏘울 EV'가 미국 UL사(社)로부터 업계 최초로 환경마크(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쏘울 EV'는 내부에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폼, 바이오 섬유 등을 대거 사용했으며 ▲내장트림용 셀룰로오스 기반 플라스틱 ▲표피재용 바이오 열가소성탄성체 ▲카펫용 바이오 섬유 ▲내장재용 바이오 도료 ▲콘솔용 폴리유산 함유 고내열/고충격 플라스틱 등 세계최초로 개발한 5가지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다.

특히 바이오 소재 적용 중량이 23.9㎏로 단일 차량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직물시트 차량 기준, 식물유래 탄소(C14) 함량비가 10%인 점 등을 인정받아 UL 환경마크를 획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쏘울 EV'가 UL 환경 마크를 획득한 것은 끊임없는 친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선도적인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L(Underwriters Laboratories)사는 1894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1만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의 안전관련 규격 개발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세계적 인증기관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스마트카메라 'NX30'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달 CES 2014에서 처음 선보인 프리미엄 미러리스(Mirroress) 스마트카메라 'NX30'을 5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제품은 2030만 고화소 APS-C 타입의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고해상도의 뛰어난 사진 이미지 품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작년 하반기 취업 성공한 신입사원 평균 스펙

토익 662점·학점 3.6점·자격증 2개

지난해 하반기 취업관문을 통과한 신입사원 평균 스펙은 토익 662점, 학점 3.6점, 자격증 2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21~24일 작년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뽑은 회사 2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평균 토익 점수는 작년 상반기(730점)보다 눈에 띄게 떨어졌다. 구간별로는 600~700점 미만(34.4%), 700~800점 미만(23.3%), 600점 미만(18.9%), 800~900점 미만(18.9%) 순이었다.

반면 영어 말하기 시험 성적이 있는 신입사원은 28%로 작년 상반기보다 11%포인트 늘어났다.

평균 학점은 작년 상반기(3.5점)보다 0.1점 증가했다. 3.6~3.9점 미만(38.9%), 3.0~3.3점 미만(24.4%), 3.3~3.6점 미만(21.1%), 3.9~4.2점 미만(14.4%)의 분포를 보였다.

자격증은 OA(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37.5%), 전공 관련 자격증(36.4%)이 주를 이뤘고, 이 밖에도 IT 관련 자격증(10.2%),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4.5%) 등을 갖고 있었다. /연합뉴스

시중銀 이어 지방은행 고객정보유출 특검

5일부터 관리실태 점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든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는다.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도 일제히 검사 대상에 올랐다. 결국 모든 국내 은행이 동시 특검을 받게 돼 은행권은 연초부터 비상이 걸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전국 모든 지방은행에 대한 고객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모든 지방은행이 동시 특검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사실상 중단했으나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부족한 영업력을 대출모집인으로 메우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3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경위가 대출모집인과 영업점 직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은행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방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 부실 및 고객 정보 부당조회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특수은행에 대한 특검도 처음으로 5일 착수된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886.85 (-33.11)	507.56 (-6.06)	2.85% (-0.03)	1083.80원 (-0.70)

■ 새얼굴

"중기·창조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홍운기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중소·창업기업 지원강화로 실물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신임 홍운기 본부장(55)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총량 목표를 확대함과 동시에 올 상반기 중에 년간 보증공급액의 60% 이상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신보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신임본부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군산고,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입사해 제6대 노동조합위원장, 전주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